No.20170208-001
제목: 단비
저자: 유즈키 유코
페이지수: 33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0월 26일

<내용소개>

정년 퇴임한 경찰관이 과거와 비슷한 사건을 뒤쫓으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작년《고독한 늑대의 피》로 일본추리작가협회상(장편 및 연작 단편집 부문)을 수상한 작가 유즈키 유코의 신작이다. 주로 검사나 변호사, 경찰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회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 미스터리 소설을 발표해 왔다. 이번 소설의 주인공은 전직 경찰관이다.

군마 현에서 42년간 형사 생활을 한 뒤 퇴임한 '진바 토모나리'는 아내 카요코와 시코쿠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여행의 첫 날 밤, 숙소 TV에서 군마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유괴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진바는 16년전 담당했던 '쥰코 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행방불명된 초등학교 1학년 소녀 쥰코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시신으로 돌아왔다. 범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DNA 검사였다. 과학수사에 힘입어 그를 체포했지만, 훗날 새로운 목격 증언이 나타나며 범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다. 당장 재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경찰 고위층에서는 그대로 종결하는 쪽을 택했다. DNA검사의 결과를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감,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진바는 당시 제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해 왔다. 그리고 당시 잡혔던 범인이 아직 복역 중인 지금, 꼭 닮은 유괴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억울한 사람에게 형을 살게 했다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던 진바는 역시 16년전 진범이 따로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비록 퇴직한 전직 형사지만, 동료 형사에게 협력을 구해 진상을 알아내려 한다.

소설은 여행 중인 진바 부부의 여정, 과거 사건과 주재소 근무 시절의 추억이 엮이며 전개된다. 남편을 지지해주는 아내 카요코, 진바의 후배 형사인 '오가타'와 교제 중인 딸을 포함한 가족의 이야기도 중간중간 나온다. 중반까지는 각각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에 더 집중하며 담담하게 진행되고,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중심 축이 사건으로 이동하며 보다 속도감 있게 나아간다.

여기에는 탄성을 자아내는 명탐정도, 괴팍하지만 천재적인 슈퍼 히어로도 없다. 충성을 맹세한 조직이 정당하지 못한 압력을 행사할 때, 굴복하는 일 없이 형사로서의 긍지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지 고뇌하는 평범한 경찰들이 있을 뿐이다.

형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유괴사건을 해결하려는 동료 형사 등 주요 인물들의 굳건한 의지가 빛난다. 주인공에게는 현재의 사건이 예전에 범한 실수를 만회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 줄 유일한 '단비'나 마찬가지다. 정의와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직 경찰관은 그토록 바랐던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독자를 압도하며 끝까지 박력 있게 밀어붙이는 장편 미스터리다.

<저자소개>

유즈키 유코

1968년 이와테 현에서 태어났다. 2007년 〈기다리는 사람〉으로 야마신문학상에서 수상하고 2008년 《임상진리》로 제7회 《이 미스터리가 대단하다!》 대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2013년 《검사의 소망》으로 제15회 오오야부 하루히코 상, 2016년 《고독한 늑대의 피》로 제69회 일본추리작가협회상(장편 및 연작단편집 부문)을 수상했다. 기타 작품으로는 《최후의 증인》, 《검사의 사명》, 《파레토의 오산》, 《네펜시스의 달콤한 숨》, 《내일의 당신에게》 등이 있다.

No.20170208-002
제목: '발붙일 곳' 담당자와 열한 가지 물건
저자: 히가시 나오코
페이지수: 224
장르: 소설
출간일: 2011년 05월 10일

<내용소개>

죽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의 곁에 있고자 '물건'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11편의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은 무한한 창작의 소재가 되었다. 이승에서의 삶을 심판 받고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른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유령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히가시 나오코의 소설《발붙일 곳》은 기존의 이야기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참신하다.

이 책에는 총 11개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각기 다른 망자(亡者)들은 저승에서 "발붙일 곳 담당자"를 만난다. 아직 미련이 깊이 남아있으니 세상에 잠시 발붙일 곳을 찾아주겠다고 말한다. 본인이 선택하는 '물건'에 들어가 소중한 이와 재회할 수 있다는 제안에, 모두 선뜻 응한다.

병으로 사망한 중년 여성. 그녀는 야구부 투수로 활동하는 아들이 마운드에서 손에 쥐는 로진백 속으로 들어간다. 중학교에서 치르는 마지막 야구시합을 보기 위해서다.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죽은 딸은, 엄마의 보청기를 마지막 발붙일 곳으로 택한다. 연모하던 선생님의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여자는 그가 들고 다니는 백단나무 부채가 된다. 그 외에 남편이 아끼는 머그잔이 된 아내, 매일 놀던 정글짐이 되어 엄마를 기다리는 소년, 도서관 사서의 명찰이 된 노인, 아내가 쓰는 일기장이 된 남편, 과로사 했지만 마사지 의자가 되어 가족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손자를 위해 구입한 카메라 렌즈가 된 할머니까지 다양한 스토리가 펼쳐진다. 성별, 연령대, 가족, 선생과 제자, 선후배, 스쳐 지나가며 알던 사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와 단상들이 담겨 있다. 물건은 유령과 다르다. 누군가 떠올리고 꺼내주고 만져줘야만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죽은 자의 혼이 깃들어 있으리라 짐작하지 못하고 험하게 다뤄지기도 한다.
주인공들은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다시 떠나야 한다. 담당자는 그저 갑작스럽게 떠난 사람들이 물건을 통해서라도 세상과 천천히 작별을 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쓸쓸하면서도 개운하고 행복하다. 다소 오싹한 번외편은 방심하던 독자들에게 반전까지 선사한다.

2011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2016년에 뒤늦게 입소문을 타며 좋은 평판을 얻고 판매부수가 증가했다. 음악인으로서 작곡작사를 해왔기 때문인지, 히가시 나오코의 부드러운 문장은 마치 노래처

럼 신체 감각에 흡수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만약 내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가게 되면, 내 앞에 발 붙일 곳 담당자가 나타나 기회를 준다면 어떤 물건을 택할 것인가? 자신의 일처럼 상상해보며 읽으면 더욱 큰 재미와 감동을 얻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로진(송진가루) / 트리케라톱스 / 파란 것 / 백단향 / 이름 / 속삭임 / 일기 / 마사지 / 입술 / 렌즈 / [번외편] 비파나무 밑의 딸

<저자소개>

히가시 나오코

작곡가 겸 작가. 1963년생. 가집(歌集)《스노하라 씨의 리코더》《푸른 알》《히가시 나오코 모음집》등이 있다. 2006년 소설《나가사키의 손가락》로 소설가로 데뷔하였으며 이후《작별의 창》《약방의 타바사》《키오스크의 키리오》등 다수의 소설과 에세이《일곱 하늘, 두 물》등을 발표했다. 공저《회전문은 순서대로》《단가가 있잖아》《고동의 노래》등이 있다. 1996년 가단상, 2016년《이토의 숲 속 집》으로 쓰보타 죠지 문학상을 받았다.

No.20170208-003
제목: 0초 공부 기술
저자: 우쓰데 마사미
페이지수: 240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7년 01월 22일

<내용소개>

세계에서 가장 심플한 시험 합격 방법! 공부 속도를 향상시키는 비결을 공개한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시험을 만난다. 초·중·고교부터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학기 중 한 번, 학기 말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으며 숙련된 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정량화 하는 것이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 물론 입사 후에도 승진시험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숫자나 등급으로 표시되는 결과에 따라 인생의 앞날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시험공부에는 끈기나 재능이 필요 없고 오래 붙잡고 들여다보며 생각할 필요도 없다. 적어도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주장한다. 명문대 입시, 토익, 공인회계사, 노무사, 행정관, 공무원 등 다양한 수험생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한 비결은 "속도"다. 제목의 '0초 공부 기술'이라는 표현에는 4가지 의미와 목표가 담겨 있다. 본문의 5개 장에서 하나씩 차례로 설명해 나간다.
첫째, 〈0초 해답〉이다. 실제 시험 현장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헷갈리지 않고 확실한 답을 낼 수 있는 상태다. 전체 시험 범위에 이렇게 통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와 지식에 대해서만이라도 즉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합격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다.
둘째, 0초 공부 기술의 핵심인 〈0초 독해〉다. 공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읽기'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나간다.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멈춰 생각하는 시간, 지금 바로 완벽히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간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다. 2장과 3장에 걸쳐 이론과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아본다.
셋째, 〈0초 시험〉이다. 시험을 치기 전에 스스로의 기억과 이해 수준을 체크하는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셀프 피드백이 가능해진다. 수시로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4장에서 배울 것이다.
마지막 5장의 주제는 네 번째 의미, 〈0초 공부〉다. 공부를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을 제로로 하는 것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몸에 익혀 습관화하면 직장인이 되어서도 '0초 업무 기술'로 응용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공부'에 대한 상식과 반대되는 내용도 많다. 하지만

저자는 4가지 '0초'로 구성된 0초 공부 기술이야말로 학업과 일, 인생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결임을 강조한다. 심플한 방법이지만 시험합격의 왕도이며 지름길이다. 타당한 논리와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전함으로써 독자가 실천해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목차소개>

서장: 〈대충 읽기〉가 빠르고 깊은 기억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제 1장: 0초 해답 – 바로 풀이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
제 2장: 0초 독해(이론편) - 〈알려고 하지 않고〉 읽는다
제 3장: 0초 독해(실천편) - 〈막힌 부분은 넘어간다〉 멈추지 않고 읽는다
제 4장: 0초 시험 – 즉각적인 피드백, 항상 현재와 마주한다
제 5장: 0초 공부 – 언제 어디서든, 지금 바로 공부한다
종장: 〈0초 공부 기술〉에서 〈0초 업무 기술〉로

<저자소개>

우쓰데 마사미
트레스펙트 교육연구소 대표. 1967년 교토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출판사와 컨설팅 회사 근무를 거쳐 뉴욕대학에서 유학하였으며(MBA) 이후 외자계 은행에서 일하다가 2002년에 독립하였다. 30년에 걸쳐 심리학과 기억 기술, 속독을 실천 및 연구했으며 뇌 과학, 인지과학을 적극적으로 응용한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학습 방법을 확립하였다. 기업연수와 직장인 대상 강좌・개별지도를 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트 All about 〈기억술〉 의 가이드.
주요 저서로는 《어떤 책이라도 대량으로 읽을 수 있는 속독 책》, 《업무 실수가 사라지는 두뇌활용 방법》, 《신기한 듣기 기술》, 《'1분 스피드 기억' 공부법》, 《암기에 서툰 사람의 3스텝 기억 공부 기술》 등 다수가 있다.

No.20170208-004
제목: 마음의 경제학
저자: 이다 타카노리
페이지수: 208
장르: 심리, 경제
출간일: 2016년 12월 06일

<내용소개>

마음 때문에 완벽히 합리적일 수 없는 '인간'을 살펴본다! 행동경제학 입문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이해득실을 판단하여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다. 하지만 진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가가 떨어질 일밖에 남지 않은 주식 종목에 투자를 결정하거나, 집값이 높이 치솟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한 희망 하나로 사들였다가 하우스 푸어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행동경제학은 심리학, 생리학, 사회학적 관점을 응용해 인간의 비합리적인 경제 행위에 접근한다.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사고는 때로 제한되며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책은 일반인도 행동경제학을 수월하게 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본문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을 비판하며 시작한다. 그 동안 배제되던 마음 개념을 경제학 속에 되돌려놓기 위한 운동도 소개한다.
2장에서는 행동경제학을 주창하고 기틀을 세운 두 거장, 허버트 사이먼과 다니엘 카네만의 주장과 이론을 배울 수 있다. 변방에서 생겨나 경제학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기까지, 행동경제학의 탄생과 변천사를 간략히 짚어본다. 필연적인 위험요소와 불가역적인 시간요소도 같이 다룬다.
3장의 주제는 모럴 사이언스의 계보다. 개인과 사회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려는 학문인 '모럴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의 반대 개념에서 나왔다.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부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꽃피운 모럴 사이언스까지, 행동경제학의 역사를 돌아본다.
4장은 이타성에 대한 내용이다. 경제학은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하지만, 인간은 이타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 다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저절로 내면에서 우러나와 하는 것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타성과 관련된 유전학적·뇌과학적 연구들도 활발하다. 이제는 경제학도 새로운 인간상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5장에서는 확률로 보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경제학적으로 풀어내본다.
6장은 인간이 제한된 합리성을 발휘하는 이유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인간의 결점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대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버릇과 더 좋은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넛지' 같은 방법을 논하며 끝맺는다.

행동경제학은 지금까지의 경제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낸다. 이 책은 아직 행동경제학이 생소한 이들에게 친절하게 기초를 마련해 줄 입문서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경제학 속의 심리
제 2장: 뛰어오르는 행동경제학
제 3장: 모럴 사이언스의 계보
제 4장: 이타성의 경제학
제 5장: 불확실성과 예상 밖의 경제학
제 6장: 진화와 신경의 경제학
제 7장: 행동변용과 넛지의 경제학

<저자소개>

이다 타카노리

1965년 니가타 현에서 태어났다. 1989년 교토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를 수료하였다(경제학 박사). 일리노이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분야는 응용경제학이다. 정보통신 경제학, 행동건강경제학 연구를 거쳐 필드에서 실험경제학과 빅데이터 경제학의 융합에 골몰하고 있다.

No.20170208-005
제목: 승률 90%로 만들어 주는 숫자 활용 방법: 직장인을 위한 수학적 사고 입문서
저자: 후쿠사와 신타로
페이지수: 206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06월 01일

<내용소개>

문과 출신도 수학적 센스를 키울 수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숫자' 활용 지침서

학생들의 '수학 기피증'은 고질적 문제다. 숫자와 수학이 싫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과를 택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또 마주해야 한다. 요즘에는 직장인에게도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학적 센스란 무엇일까? 수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 후쿠사와 신타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수학으로 길러온 두뇌활용방식을 실생활과 비즈니스에서 응용하는 능력".

수학은 머리를 쓰는 감각을 발전시켜나가는 스포츠와 같다. 1장에서는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 갖고 있던 경직된 태도와 오해를 풀어주며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업무 상 맞이하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해결까지의 최단거리를 찾아내는 방법, 즉 〈비즈니스 수학 사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몸에 익혀 활용하는 것이다.
2장은 논리사고의 개념과 논법에 대한 내용으로, 일일이 예시를 들어 친절히 알려준다. 주장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가 없으면 논의에서 이길 수 없다. 비즈니스는 사람·사물·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반론을 펼치는 방법까지 상황 별로 제시한다.
3장은 문과 출신이야말로 수학에 강해질 수 있다는 주제로서, 수학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2장의 논리사고와 3장의 수적사고가 결합된 것이 바로 '비즈니스 수학 사고'다.
4장은 보다 실천적인 부분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기술들을 소개한다.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추리 과정을 명탐정의 범인 찾기에 비유하고, 수학의 증명 문제를 본보기 삼을 것을 추천한다. 한편 다수가 모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회의다. 회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면, 참석자 수와 소요 시간 및 필요 자료들은 자연히 결정된다.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사라진다.
여기까지는 스킬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지막 5장에서는 실제 숫자가 가진 힘을 살펴본다. 업무상 목표는 항상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어야 한다. 제한된 조건에서 무언가를 최대화하는 법을 테마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답을 짚어나가는 과정을 알려준다.

학생 시절에 수학 과목 성적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센스란 모방에서 시작해 자기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훔쳐오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단련할 수 있다. 풍부한 문제와 풀이를 통해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수학적 센스를 강화시켜 줄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비즈니스 수학 사고〉를 익혀보자
제 2장: 논의에서 이긴다! 논리사고 센스
제 3장: 문과 인간이야말로 〈숫자〉에 강해질 수 있다
제 4장: 오늘부터 사용하는 〈문제해결〉 힌트
제 5장: 〈실제 숫자〉가 가진 설득력

<저자소개>

후쿠사와 신타로
BM 컨설팅 대표. 1975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으며, 니혼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중·고교 교원 면허 취득,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 패션업계 관리직 등을 거쳐 비즈니스 수학을 제창하는 교육 컨설턴트로 독립하였다. 〈비즈니스 수학 검정〉에서 일본 최초 1급 AAA(최상위)를 획득하고 기업 연수 등에서 수학적 사고의 효용을 알리고 있다. 《업무에서 사용하는 수학》, 《수학여자 토모카가 가르쳐주는 업무에서 수학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70208-006
제목: 너무 민감해서 상처받기 쉬운 당신에게
저자: 타케다 소운
페이지수: 189
장르: 심리,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0월 27일

<내용소개>

민감함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어 자신만의 장점으로 만들자

민감하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특정 사람의 성향이나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는 더욱 그렇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혼자만 까다롭게 굴며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미지가 있다. 본인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별 생각 없이 지은 표정에 전전긍긍하며 위축되거나 걱정한다. 민감한 사람들은 신경 쓰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지친다. 그들의 문제는 타인의 변화를 너무 잘 발견하고 나쁜 것에 더 신경을 쓴다는 점이다. 사람의 거짓, 악의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민감함'에도 방향성이 있다. 주변에 대한 민감함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타인의 고민이나 괴로움을 빠르게 알아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포착해내며 보통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예술작품의 감수성을 발견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사소한 것에 가슴앓이하며 끙끙대고 고민할 일도 사라진다. 즉, '민감한 사람들'은 행복을 잘 느낄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난 셈이다.

이 타이틀은 민감성의 방향을 바꾸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단계별 지침서와 같다. 1장에서는 그동안 굳게 믿고 있던 생각의 틀을 조금씩 느슨하게 한다. 서두르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다. 정답은 타인의 평판이나 반응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장은 스스로를 무리시키지 않는 선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다. 적절한 배려, 진실한 마음을 나누기, 자기 감정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조언을 핑계로 상처주지 않기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나쁜 것만큼이나 좋은 것도 잘 찾아내는 마음의 안경을 써 볼 것을 제안한다. 힘든 일은 유머로 넘기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열등감은 시야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상대의 단점과 더불어 장점도 보이게 될 것이다. 4장은 타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며, 5장은 상황 별로 현장 분위기에 잘 융화되는 비결을 소개한다. 6장에서는 괴로운 일마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민감하게 구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스스로도 낮게 보던 민감함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즐거운 생

활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본문에 제시된 경험과 생각을 참고하여 초조해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보자.

<목차소개>

제 1장: 생각의 나사를 느슨하게 풀어 본다
제 2장: 지치지 않고 좋은 사람 되는 법 추천
제 3장: 〈마음의 안경〉을 써 본다
제 4장: 타인의 기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다
제 5장: 그 곳의 공기와 잘 어울린다
제 6장: 〈괴로운 것〉을 즐기는 방법

<저자소개>

타케다 소운
1975 년 구마모토 현에서 태어났다. 도쿄이과대학을 졸업하고 NTT 에 입사하였으나 약 3 년 뒤에 퇴사하여 서예가가 되었다. NHK 대하드라마 〈천지인(天地人)〉과 세계유산〈히라이즈미(平泉)〉, 세계 제일의 슈퍼컴퓨터 〈케이(京)〉등 다수의 제자(題字)를 맡았다. 독창적인 세계관을 내세워 전국에서 개인전과 강연을 열고 있으며 미디어 출연 경험도 다수 있다. 문화청에서 2013 년도 문화교류사로 임명되어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였고, 2015 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No.20170208-007
제목: 은행원만 아는, 돈 모이는 사람의 돈 쓰는 방법
저자: 나가키 타카히로
페이지수: 224
장르: 경제
출간일: 2016년 12월 18일

<내용소개>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전직 은행원이 알려주는 돈 쓰기 비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 값과 공과금 등으로 쑥쑥 빠져나가 버리기 일쑤다. 은행 예금이 돈을 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자소득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했다 실패를 거둔 사례도 부지기수다. 남는 돈을 조금씩 모아 끌어안고 있어봤자 저절로 증식할 리도 없다. 어떻게 해야 돈이 모이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전직 은행원이었으며 투자 시스템을 파악해 수익을 거둔 자산운용의 달인으로서, 현재는 부동산 감정 및 투자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돈이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돈을 쓰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흔히는 모으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반대다. 저자에 따르면, 돈에도 삼위일체가 있다. 먼저 '마음'은 돈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자기와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것이다. '기술'은 돈이 모이는 정보와 지식 및 테크닉을 뜻한다. 책에서 읽거나 다른 사람이 알려준 내용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생활수준에 기초해 유용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친다. '신체'는 앞서 마련한 가치관과 철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행동에 나선다. 이 세 요소의 균형이 맞아야 비로소 돈이 모인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1장은 돈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를 다룬다. 본문의 모든 항목은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어느 쪽이 답일지 추측해나가며 읽도록 되어있다. 맨 처음 알아야 하는 것이 돈이 모이는 방법인지 돈 그 자체인지, 저금을 한다면 보너스 전액을 넣어야 할지 급여에서 매달 일정 2만엔을 넣는 쪽이 나을지 물어보며 답을 제시한다. 2장~5장은 돈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한다. 시간, 가치관, 갖고 싶은 것 등 사용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지 헷갈리는 상황들이 주어진다. 퀴즈를 푸는 듯 또 다른 재미가 있다. 5장은 머리를 써서 돈을 모으는 법이다. 통장과 지갑의 적합한 개수, 최적의 저축 시기, 자기의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돈을 무턱대고 모으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며 돈을 쓰는 방법이 더욱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한다.

눈 앞에 놓인 것들에 쉽게 지갑을 열게 되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개인의 기준에 맞게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달라진다. 낭비를 소비로, 소비를 투자로 업그레이드하여 돈이 알아서 모이도록 하고 싶은 사람에게 힌트가 될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돈〉을 알고 있다
제 2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시간〉에 돈을 쓴다
제 3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가치관〉에 돈을 쓴다
제 4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갖고 싶은 것〉에 돈을 쓴다
제 5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머리〉를 써서 모은다
제 6장: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늘릴 수 있다

<저자소개>

나가키 타카히로
부동산 감정사. 일반사단법인 부동산 투자가 육성 협회 대표이사, Asset Life Managemen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메가뱅크 은행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로 월 100 만엔 이상 버는 '돈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실현했다. 현재 500 명이 넘는 부동산 투자가가 소속된 일반사단법인 부동산 투자가 육성 협회의 대표로서, 투자가 육성 및 교육 보급에 힘쓰고 있다. "누구든 지식 제로, 저금 제로에서 현금자산 1 억 엔을 만든다"라는 투자 이론은 장래 돈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샐러리맨, OL, 주부, 학생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저서는 《은행원만 아는 돈 늘리는 구조》《시각화 하면 돈은 늘어난다!》 등을 비롯해 총 11 권이며 누계 11 만부를 넘었다.

No.20170208-008
제목: 부모의 품격
저자: 반도 마리코
페이지수: 237
장르: 사회
출간일: 2016년 12월 22일

<내용소개>

자녀를 잘 키우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요즘 시대의 부모가 지녀야 할 품격

고작 몇 세대 만에 우리 '가족'의 모습은 너무 많이 변했다. 이제는 결혼과 출산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재검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과업'으로 변하고 있다. 스스로 가정을 꾸리는 것과 자녀를 키우는 것. 기쁨만큼이나 큰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사회상에 발맞춰 가족과 부모의 새로운 이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여성의 품격》으로 2007년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작가 반도 마리코가 이번에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이틀이다. 갖가지 자극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해야 무사히 키워낼 수 있을까? 본문은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여 세상에 나오게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키워내야 하는 '부모'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노래 부르고 글을 읽고 자연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이후 내용은 예의범절 교육과 인간성 함양에 대한 것이다. 부모가 혼내는 것에도 옳은 방법과 잘못된 방법이 있다. 잘못을 했을 때 사과하는 방법, 손님을 집에 초대해 대접하기, 바른 생활습관 등을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욕설이나 차별은 지양하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모두 인간성의 바탕이 된다.
학교에 입학하여 활동반경이 넓어지면 조직의 룰을 이해하며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된다. 예민한 10대에는 자원봉사와 홈스테이를 통해 세상을 넓혀주는 것을 추천하며, 아이의 친구를 같이 만나 친분을 쌓는 것도 좋다.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시기다. 이외에도 외부 정보에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노출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좋아하는 책과 신문 및 잡지를 보게 하되 중독성 있고 내용이 컨트롤되지 않는 정보기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 장은 성숙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다. 경제적 독립을 못하고 20대 후반~30대까지 부모에 얹혀 사는 패러사이트 싱글이 되지 않기 위해, 부모로서 자녀가 좌절과 실패를 겪더라도 도와주지 말고 묵묵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자녀가 노쇠한 부모의 간호를 맡게 될 경우, 유언을 남기는 경우까지 다루고 있어 '부모로서의 일생'을 담은 셈이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부모 혹은 자식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부모의 보편적인 고민들을 정리하여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답변을 모색한 이 책이, 보다 깊이 있고 원만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유용하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제 1장: 생명을 기르다
제 2장: 매너를 기르다
제 3장: 인간성을 기르다
제 4장: 학교와 조화
제 5장: 10대인 아이들과
제 6장: 정보에 어떻게 접촉시킬까
제 7장: 성숙한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들다

<저자소개>

반도 마리코
1946 년 도야마 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을 졸업하였다. 1969 년 총리부에 입성, 내각 홍보실 참사관, 남녀공동참여실장, 사이타마 현 부지사 등을 거쳐 1998 년 여성 최초 총영사(호주 브리즈번)로 임명되었다. 2001 년 내각부 초대 남녀공동참여국장, 2004 년 쇼와여자대학 교수가 되었다. 동 대학 여성문화연구소장 및 부학장을 거쳐 2007 년에는 쇼와여자대학 학장을 맡았다. 저서로는 《여성의 품격》, 《부지사 일기: 나의 지방행정론》, 《여유의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총영사 견문록》, 《남녀 공동 참여사회로》, 《신 가족시대》, 《미국 커리어우먼의 사정》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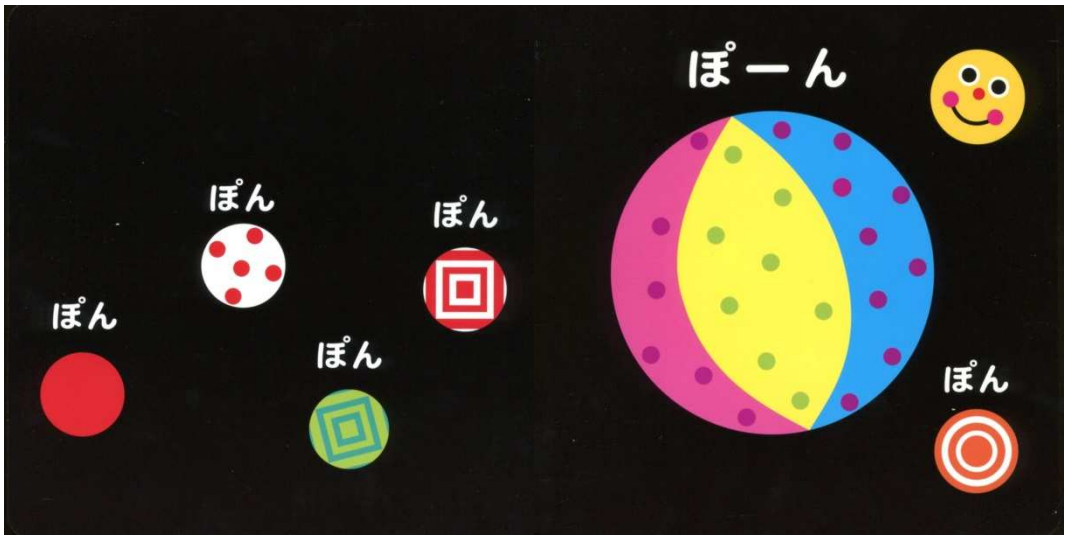
No.20170208-009
제목: 생긋생긋
저자: La ZOO(글&그림), Sassy(감수)
페이지수: 2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17일

<내용소개>

아기의 시각과 두뇌 활동을 촉진시킬 재미있는 의성어 그림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엄마와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장난감 Sassy가 그림책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생긋생긋 웃는 좌우대칭형 동그란 얼굴. 아기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알록달록 선명한 색상들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규칙적인 모양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각양각색의 동그라미들은 공, 물방울, 무당벌레, 물고기, 해님 등 여러 형태로 변합니다.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의성어 및 의태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며 언어적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심리학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응용한 Sassy의 캐릭터와 이미지인 만큼, 아기들이 좋아하고 호기심을 가질만한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0세부터 보여줄 수 있으며 생애 첫 그림책으로 추천합니다. 아직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라면 정면 20~30cm 되는 거리에서 보여줘야 초점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을 자극하여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책을 보는 재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지닌 그림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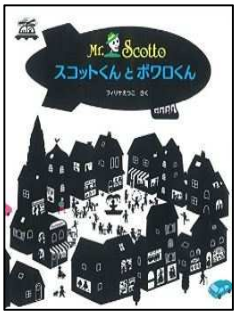
La ZOO (글&그림)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그림책과 굿즈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그룹. 1997년 〈놀이의 왕 BOOK 시리즈〉로 2000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논픽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다수의 저서와 작품이 있다.

Sassy (감수)

미국에서 건너 온 지능발달완구 Sassy. 아기들의 발달심리학을 연구하여, 오감을 자극하고 발달을 촉진할 장난감이 풍성하다. Sassy가 많이 사용하는 '흑'과 '백'은 아기가 제일 먼저 인식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0개월부터 쓸 수 있는 장난감으로 널리 알려진만큼 캐릭터와 그래픽도 아기의 눈을 통해 마음과 두뇌 발달로 이어지도록 의도했다. http://www.dadway.com

No.20170208-010
제목: 푸아로의 수수께끼 생일파티
저자: 필리케 에츠코
페이지수: 36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9월 13일



<내용소개>

친구 푸아로의 파티에 초대받은 스코토! 수수께끼의 물건들을 모두 찾을 수 있을까요?

스코토는 친구 푸아로의 생일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보니, 오는 길에 파티에 필요한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 달라는 부탁이 쓰여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보면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길다란 것을 한 개, 두 번째는 위에서 보면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인데 파티에 온 사람들이 머리에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보면 꽃처럼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들쑥날쑥 삼각형인데 케이크 가게에서 찾을 수 있고 정말 맛있는 것. 스코트는 답을 알 듯 말 듯 아리송합니다. 넓은 시내를 지름길로 오가며 처음엔 미용실로, 모자가게로 열심히 다니지만 푸아로의 설명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환하고 아름다운 촛불, 원뿔형의 파티용 종이 모자, 역시 원뿔형 모양이지만 볼록볼록한 삼각형의 케이크. 스코토는 이것들을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푸아로의 생일파티는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그림책 작업을 해 온 작가의 독특한 화풍이 묻어나는 그림책입니다. 주인공 스코토가 해골인 점도 참신하고, 직선과 실루엣을 많이 사용한 일러스트도 인상적입니다. 푸아로가 초대장에 남긴 퀴즈를 함께 풀어가며 집중해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필리케 에츠코(Filliquet Etsuko)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무사시노미술대학 시각전달디자인과를 졸업하였다. 1992년 프랑스로 건너가 국립장식미술대학 아트과 및 국립 디플로마 DNSAP를 취득하였다. 2002년부터 프랑스 출판사에서 그림책을 출간했으며 현재도 프랑스 그림책과 잡지 일을 하고 있다. 30권 이상 되는 그림책이 10개국이 넘는 곳에서 현지 언어로 번역 되었다. 2008년 귀국했다. 본 그림책은 처음으로 일본에서 펴낸 스토리 그림책이다.